광주여상,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강진서·박윤정·오윤정·조은별 교육부장관상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강진서·박윤정·오윤정·조은별 학생이 '2023년 직업계고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7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창업을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했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의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스물빼기하나'팀은 B-Watch(Bright World Watch)란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템을 고안했다. 해당 아이템은 OCR(광학적 문자판독기), TTS(텍스트 음성변환),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물체나 글을 판독하고 음성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워치이다. 장애인들은 이 물건으로 원하는 물건을 정확하게 구매하는 등 자립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회는 94팀 총 350명이 참가했으며 본선 평가 및 시상은 5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심사 결과 교육부장관상 3팀, 한국장학재단이사장상 2팀,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 2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팀을 선정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광주여상 스물빼기하나팀이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차지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단 연수

고등학교 32교 대상…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사례 나눔

광주시교육청이 5월30일~8월30일 고등학교 32교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빛고을 교육과정·수업·평가 고등학교 연수단 상반기 연수'를 실시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빛고을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단이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사례 나눔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연수 진행을 위해 지난 5월 관내 고등학교에 총 109개 주제의 공통·교과 연수를 안내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등학교 32교 대상 총 99강좌의 연수를 개설했다.

특히 연수는 ▲챗 GPT 활용 융합교육 실천 방법 ▲교과 연계 융합수업 디자인 ▲다양한 컨텐츠 활용 수업 사례 ▲ 교과 과정 중심 평가와 기록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등 44개 주제로 마련됐다. 연수시간은 190시간으로, 고등학교 851명의 교원이 다양한 주제의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빛고을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를 통해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교사의 열정이 수업 내실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업은 교육의 '핵심'으로, 교실 수업의 변화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더 좋은 수업을 위한 교사 스스로의 연구 및 실천을 지원하고, 협력과 나눔의 풍토를 조성해 광주교육이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대 '올해의 용봉인' 김경천·박승현 대상 선정

전남대학교 2023년 용봉인에 김경천 전 국회의원과 박승현 영진종합건설 회장이 선정됐다.

전남대 총동창회는 김경천·박승현 동문을 제27회 올해의 용봉인 영예대상자로 뽑았다고 2일 밝혔다. 시상식은 8일 오후 5시 전남대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개교 7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김경천 동문은 1970년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시절 학보사 기자, 학교방송 CUB 초대실장을 맡아 교가와 '용봉의 노래' 등을 보급했다.

또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두 차례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광주YWCA 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제16대 국회의원(광주 동구)에 당선돼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었다. 대통령 표창, 평등부부상, 대한민국 국민상, 우수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승현 동문은 1977년 전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영진종합건설을 창업해 대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국제 로타리 3710지구 총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공동회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안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군청·목포경찰·압해파출소 등 청소년과 함께 캠페인 나서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2일 압해읍 일원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안군청, 목포경찰서, 압해파출소, 군민 등이 함께해 캠페인 포스터를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게시, 손팻말과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후 홍보 물품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청소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음주운전 없는 신안군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뜻 깊은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신안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광주시, 농번기 맞아 농촌일손돕기

경제창업실 직원·농협광주본부 봉사단 등 40명 참여

광주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2일 광산구 평동 복숭아 농가 2개소(9300㎡)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을 비롯한 경제창업실 직원과 농협광주본부 봉사단 등 40여 명은 지난 4월 냉해피해를 입은 복숭아 농가 2곳을 찾아 과일솎기, 봉지씌우기, 잡초 제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이번 일손돕기 농가는 지난 4월 한파(이상저온)로 피해를 입은 과수(배·단감·복숭아·블루베리) 103농가(33ha) 가운데 선정됐다.

농촌일손돕기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협업해 농업재해지역이나 일손부족으로 적기 영농이 어려운 농가, 독거·고령·부녀농가·장애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진한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농촌일손돕기가 농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민간기업·단체, 대학, 자원봉사자 등이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울진교육청, 교육 상생 길 찾다

상생·협력 강화 및 교육자원 공유·교류증진 방안 모색

광양교육지원청과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간 영호남 교육 교류를 통해 광양과 울진 지역간에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영호남 교육 교류는 광양교육청 방문단 25명과 울진교육청 황석수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상생과 협력 강화 및 교육자원 공유과 교류증진 방안 모색 등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을 함께했다.

영호남 교육 교류 이후에는 광양교육지원청의 친환경 생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울진군 일원과 울릉도 생태탐방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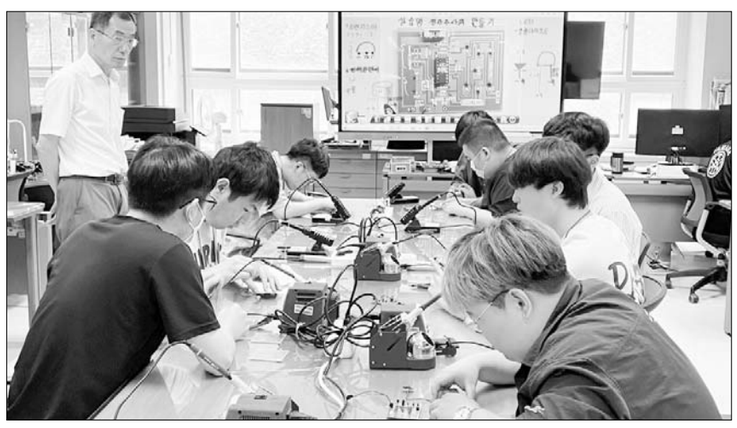
이계준 광양교육장은 "다가올 미래교육 상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행복한 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하자"며 소감을 밝혔다.

양 교육청은 오는 7월에는 광양교육청 주관으로 울진교육청 교직원을 초청함으로써 매년 1회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교육지원청 및 학교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로 다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전남교육청, 장애학생 직업역량 교육 강화

전남직업능력개발원서 전공과 집중 직무훈련 실시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학생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전공과 집중 직무훈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취업 준비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을 체험한다. 또 공단 훈련시설을 활용해 전기·전자, 융합기계 등 현장성을 강화한 훈련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고등학생 대상 기초과정, 중학생 대상 특별과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토뉴스

순천시, 성가롤로병원과 함께 장기기증 캠페인 순천시는 성가롤로병원에서 환자,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홍보, 기증 희망 등록 등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시 보건소, 성가롤로병원, 대학생 응원단이 함께 참여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봉강면, 지역 관광자원 활용 발전 방향 모색 광양시 봉강면은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3년 봉강면 체험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봉강면장을 비롯해 봉강면 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운제 개발 관련 설명, 체험 활성화 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교육청, 환경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생태전환교육 실현 환경교육 담당자 전문성 신장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순천 관내 유·초·중·고·특 환경교육 담당자 및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105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초·중학교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환경교육의 실제'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생태환경교육의 방향과 사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텃밭 운영과 수업 활용 방안, 기후위기 대응 실천 행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환경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송산초 환경교육 담당교사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환경교육의 운영 방안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청 임종윤 교육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교육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환경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환경교육 담당자에 이어 학교 관리자 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